

# 다니엘서 - 번호 121

말세의 징조를 풀어내기: 봄에 새싹이 돋는 나무들을 가리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3-0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봄에 싹트는 나무들을 가리켜 보이시며, 그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징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오심의 징조를 주의하여 살피고, 오시는 왕의 표징들을 보게 될 때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봄에 움트는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것들이 싹을 틔우면, 너희가 스스로 보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28, 30, 31. 대쟁투, 308.

말세의 "징조"들은 첫째 천사의 운동을 알리고 개시한 그 "징조"들로 예표되었다. 그 "징조"들에는 하늘의 진동이 포함되었지만, 요엘은 말세의 "징조"—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 하여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영원히 거룩하여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되는 그 날들—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의 진동뿐 아니라 땅의 권능들의 진동도 포함될 것임을 지적한다. 화이트 자매는 하늘의 권능들의 진동과 땅의 권능들의 진동 사이의 구별을 밝힌다.

1848년 12월 16일, 주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나는 주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표적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이라고 하셨으면 하늘을 뜻하셨고, '땅'이라고 하셨으면 땅을 뜻하셨음을 보았다.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들이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다스린다. 땅의 권능은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하늘의 권능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질고 무거운 구름이 몰려와 서로 부딪쳤다. 대기가 갈라져 뒤로 밀려났고, 그러자 우리는 오리온자리의 열린 공간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해 거룩한 성이 내려올 것이다. 나는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건들이 차례대로 전개됨을 보았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칼, 기근, 전염병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 것이며, 그 후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까지도 흔들 것이다. 나는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이들이 가르치듯 하늘 권세들의 흔들림이 아니라, 분노한 나라들의 흔들림임을 보았다." 초기 저술, 41.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흔들림은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들의 흔들림을 가리킨다. 이 모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렸고, 그 결과 첫째 천사의 운동의 도래를 맞이하게 하고 선포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그 하늘의 권세들은 셋째 천사의 운동 동안 다시 한 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는 땅의 권세들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땅의 권세란 땅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말한다. 2001년 9월 11일에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권세들이 흔들렸다.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바가 아니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는 큰 건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에 임할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는 특별히 받은 빛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리저리 뒤흔들고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곳의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 뿐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이 세상에 임해 있음을 안다. 주의 한마디 말씀, 그분의 강한 능력의 한 번의 손길이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표징 가운데 하나는 ‘민족들의 곤고’였다. 그 민족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을 대표하며,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가 예언의 역사 속으로 도래했을 때 지상의 모든 나라가 흔들렸다. 그 지상의 흔들림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시되었지만, ‘땅의 권세들의 흔들림’이라는 성경적 표현으로가 아니라,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전 세계의 나라들에 닥친 것과 같은 ‘민족들의 곤고’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민족들의 곤고’는 곧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며, 그것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나는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칼과 기근과 역병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 또한 흔들 것이다. 나는 유럽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나라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보았다.” 초기 문집, 41.

“분노한 열국의 권세가 흔들림”은 “땅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재림운동의 초기 역사에서 “유럽의 권세가 흔들린” 사건으로 예시된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1838년에 유럽의 권세를 흔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혀냈다.

이 [제6] 나팔의 예언적 기간이 동방의 기독교 황제가 권력을 터키인들의 손에 자발적으로 넘겨줌으로써 시작되었듯이, 그 종료 또한 터키 술탄이 그 권력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일로 표시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결론지을 수 있다. 1838년에 터키는 이집트와의 전쟁에 휘말렸다. 이집트는 터키의 권세를 전복할 기세였다. 이를 막기 위해 유럽의 네 강국,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터키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 개입했다. 터키는 그들의 개입을 받아들였다. 런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집트의 파샤 메흐메트 알리에게 제시할 최후통첩이 작성되었다. 이 최후통첩이 메흐메트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오스만 제국의 운명이 사실상 유럽의 기독교 열강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 최후통첩은 1840년 8월 11일에 메흐메트의 손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술탄은 네 강국의 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메흐메트가 그들이 제안한 조건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답변은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조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예언적 기간은 끝났고, 바로 그날 이슬람 정사에 대한 통제권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그날로부터 정확히 391년 15일 전에 그리스도교 정사에 대한 통제권이 이슬람교도들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과 같았다. 이렇게 둘째 화가 끝났고, 여섯째 나팔의 소리는 그쳤다. Uriah Smith, Synopsi of Present Truth, 218.

둘째 화의 이슬람은 그 권세의 정점을 지나 있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391년 15일 동안 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1830년대에 이집트는 이슬람 역사에서 두 번째 대지하드를 계속하기 위해 이집트에 칼리파 국가를 재건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더 많은 이슬람의 전쟁 가능성은 유럽 열강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수십 년 동안 이슬람이 전쟁을 다시 점화할 위기는 그 시기의 역사학자들과 기자들에 의해 '동방 문제'로 불렸다. 동방의 자손들의 전쟁은 수세기 동안 로마 교회에서 유래한 종교를 가진 유럽의 나라들을 상대로 수행되어 왔다. 1838년에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민족들의 혼란'은 이슬람이 옛 로마 제국을 상대로 가한 전쟁으로 인해 분노한 민족들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켰다.

"유프라테스 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구성하던 네 주요 민족들이—그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려 헛되이 시도했고 유럽 정복에서도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유럽의 3분의 1을 휩쓸어 복속시키도록 허락하시려 한다고 이해한다. 이는 15세기 중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윌리엄 밀러의 저작집, 제2권, 121쪽.

누가복음에 나오는 서술에서 민족들의 곤경은 '혼란 가운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고', 또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었다. 동방문제의 혼란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열강을 계속 뒤흔들었고, 그 고통의 상징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 인침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것과 동일하다. 요한 또한 이 가장 놀라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바다와 파도가 포효하는 것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 물이 포효하고 요동치며 그 물의 불어남으로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재앙, 역병, 기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

요한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보았을 때, 그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표현된 민족들의 곤고와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을 잃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은 에스겔에게 9장에서 보여진 바로 그 인침과 동일한 것이었다. 에스겔에게는 그 인침의 내적 요소들이, 요한에게는 그 인침과 관련된 외적 요소들이 보여졌다. 요한은 민족들의 분노가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고, 이 민족들의 분노는 누가의 민족들의 곤고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동방 문제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요한은 셋째 화의 이슬람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외적 표징임을 보았다.

현재는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지대한 관심의 때이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신임과 권위를 지닌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려 깊은 남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지상적 요소를 사로잡고 있는 격렬한 긴박성을 목도하며, 어떤 크고도 결정적인 일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음을, 곧 이 세상이 엄청난 위기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천사들은 지금 투쟁의 바람을 불들고 있어, 세상이 다가오는 파멸에 대하여 경고를 받기 전에는 그것들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나 모여 땅 위에 터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에는, 어떤 필설로도 묘사할 수 없는 투쟁의 광경이 있을 것이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세계 역사에 나타날 위대한 마지막 장면들이 계시되어 있으며, 그 사건들은 이미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그 다가오는 소리만으로도 땅이 떨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쇠약해진다.” 교육, 179, 180.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밀러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킨 ‘징조들’을 지적하셨고, 그 모든 ‘징조’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말에 따르면 성취되었다. 리스본 지진, 암흑의 날, 별들의 낙하, 그리고 동방문제가 야기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슬람에 의해 성취된, 곧 이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일을 나타내는 열방의 곤고가 모두 성취되었다. 밀러주의의 ‘징조들’에는 또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징조들’의 순서에 맞게 성취되었다. 곧 1840년에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제한됨으로써 열방의 곤고가 끝난 후,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오실 때 구름을 동반하여 오셨다.

“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더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7:13, 14. 여기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지상 재림이 아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가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실 때 받게 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다. 예언에 따르면 1844년에 2300일이 끝날 때 일어날 것으로 예고된 것은 이 오심이지, 그분의 지상 재림이 아니다. 하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어 인류를 위하여 그분 봉사의 마지막 일들을 수행하시니, 곧 조사 심판의 일을 행하시고 그 혜택을 받을 자로 드러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9.

밀러파의 역사와 관련된 ‘징조들’은 십사만 사천의 역사와 관련된 ‘징조들’을 예표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그 역사적 서사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을 주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봄에 움트는 나무들’을 가리키셨다. 그분은 나무들이 싹트기 시작하면 너희가 세상 끝이 가까움을 알게 될 것이며,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것을 목격하는 그 세대가 그분의 재림의 불길 속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을 살아서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이제 그들이 싹이 나면 너희는 보고 스스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30-33.

그러면 질문은 "나무들이 언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는가?"가 된다.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에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풍의 날에 이는 거친 바람'의 '그 날'이다.

분량을 두어, 그것이 싹이 돌아날 때 너는 그것과 변론하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그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는 이러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두들겨 산산이 부수어 석회돌 같이 만들 때, 숲들과 형상들은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거처는 버림받아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거기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 누우며 그 가지들을 먹어치우리라. 그 가지들이 시들면 꺾여 나가고,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르리라. 이는 그들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빛으신 이가 그들에게 은총을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 날에 주께서 강의 물줄기에서부터 애굽의 시내까지 타작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앗수르 땅에서 멸망 직전에 있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를 경배하리라. 이사야 27:8-13.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가 (측량되어) 뿌러지기 시작했고, 늦은 비의 기별과 거짓 평안과 안전의 기별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 논쟁의 역사에서 야곱의 불의가 제거된다(정결케 됨, 곧 속죄됨을 의미함). 그 논쟁의 역사, 곧 하박국의 논쟁은 14만 4천을 인치는 기간이며,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결론난다. 이는 그것이 '견고한 성'으로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총명이 없고 긍휼이나 은총을 얻지 못하는 백성의 성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큰 나팔을 불 것인데,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자 셋째 화이며,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승리하는 교회의 운동이 되어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은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세대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며, 봄에 싹이 트는 나무를 알아보는 자들만이 나무들을 싹트게 하는 비를 받게 될 것이다. 셋째 화의 이슬람이 늦은 비의 도래와 14만 4천의 인침을 알리는 표지임을 알아보는 자들만이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받은 빛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에서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7.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수용하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다. 우리가 흠어진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그 속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야 61:11).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84쪽.

다음 글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여 깨어나지 않는다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빛이 땅을 비추기 위해 나아갈 때, 주를 돕기 위해 나아오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좁은 생각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일을 엮어매려 할 것이다.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을 통상적인 질서에서 크게 벗어난 방식으로, 또한 어떤 인간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는, 세상에 전해질 그 기별에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의 인도 아래 일이 전진할 때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지까지 지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늘 통제하려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삐를 손수 잡고 계심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의의 일을 일으키고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단순한 수단들로 인해 일꾼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300쪽.